

2024. 5. 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02-2133-82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시설안전관리팀장

임연희

02-2133-8215

서울시, AI 등 신기술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재난 대비한다..학술용역 공고

- 전국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50% 서울에 밀집... 대형·복합 재난 대비 필요성 커져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활용 재난 위치 파악·대피 동선 안내하는 신기술 모색
- 초고층 등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 마련하는 학술용역 연내 마무리 목표로 추진
- 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응, 시민이 안전한 서울 만들 것”

- 도심 내 해마다 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최근 들어 규모 또한 대형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다.
 -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475개소 중 약 50%인 237개소가 서울에 밀집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기존의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연계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피해경감계획 수립 등 예방 분야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에 시는 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초에 입찰공고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이달 말부터 용역에 착수해 연말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학술용역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파악하고 대피를 돕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들이 초고층 등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동선을 알리는 국내외 신기술을 찾는다.

- 또, 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의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019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응훈련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서울시·자치구·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대응과 지원체계가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기준과 제도도 면밀히 분석한다. 시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술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미비나 개선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추진된다. 관련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현행 법규의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최근 초고층화, 대형화된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신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재난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관리주체가 초고층 등의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